

## 유방암환자에서 골수생검과 골스캔에 의한 골전이 진단 비교

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, 일반외과\*

정환정✉, 범희승, 송호천, 민정준, 김지열, 윤정환\*, 제갈영중\*, 김신곤\*

골스캔은 각종 악성질환의 골전이를 진단하는데 가장 예민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, 골전이가 골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골수검사보다는 예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. 실제로 유방암 환자에서 이 점을 고려한 흉골 골수생검이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다. 하지만 골전이가 꼭 흉골을 침범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흉골 골수생검이 모든 골수전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. 연구들은 유방암 환자에서 골스캔과 골수생검을 비교해보고 두 검사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.

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유방암 환자 21례 (모두 여자, 평균연령은  $50 \pm 12$ 세)를 대상으로 골수생검과 골스캔을 함께 시행하였다. 골수생검은 수술시 흉골에서 시행하였으며, 골스캔은 수술전후에 시행하였다.

골수생검과 골스캔에 모두 양성인 경우가 1례, 모두 음성인 경우가 15례로 76.2%에서 두 검사결과가 일치하였다. 골수생검에 양성이었으나 골스캔에 음성인 경우가 3례 있었고, 반대로 골수생검에 음성이었으나 골스캔에 양성인 경우가 2례 있었는데 이 경우 골전이 병소는 요추에 국한된 경우가 1례, 흉골을 제외한 전신에 전이된 경우가 1례였다.

유방암 환자의 골전이 진단에 있어 골수생검과 골스캔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검사법이므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, 앞으로 골수신티그라피의 임상응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된다.